

# 순천시, 'E-Bio 순천'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시동

### 생태, 정원 브랜드 기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엔진 육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미래 핵심 3대 경제축 중 하나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E-BIO 순천'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으로 레드바이오(의약), 화이트바이오(에너지·소재), 그린바이오(농생명)로 분류되며, 시는 이 중에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이자 도농통합 도시로서의 순천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다.

시는 그동안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며,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지역 자원의 활용도 ▲기업 간 네트워크 체계 ▲R&D 역량 및 인재양성 기

반 등을 꼽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생태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그린바이오산업으로 'E-Bio 순천'이라는 독자적인 산업 육성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Bio 순천'은 순천의 생태적 자산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산업 육성 모델로, 지역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에 아우르는 두 트랙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조성 단계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순천만의 청정 이미지를 제품 브랜드로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식품, 화장품, 펫푸드를 전략 품목군으로 설정해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진기지로 승주읍 일원에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기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및 전담형 균형발전 300과 연계해 추진되며, 생산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과 주민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통해 축적한 생태·정원 브랜드 자산이 있고, 이와 결합한 '청정 브랜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E-Bio 순천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 함평군, '나비아시장' 주민·관광객 호응 속 성황

전남 함평군이 나비대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나비아시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함평군은 8일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와 연계해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열린 '나비아시장'이 지난 6일 군민과 관광객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나비아시장'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개최됐으며 문화공연·1,000원 경매·경품 추첨·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의 밤을 풍성하게 채웠다.

특히 연휴 기간과 맞물려 많은 관광객이 시장을 찾았으며 가족 단위 방

문객과 연인, 친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기며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경품 추첨 행사에는 대기 줄이 형성될 만큼 큰 인기를 끌며 행사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전통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쿠폰도 지급해 방문객의 열띤 반응을 얻었으며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상가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거뒀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연계한 여러 시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구례군은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상반기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월 5만 원씩 주거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지원

### 구례군, 대학생 대상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원 대상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은 2025년 6월 5일까지 관

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반기 6개월 분(신입생은 4개월분)을 6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2024년)에는 530명의 대학생에게 총 1억5천9백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카메라 뉴스



### 무안군,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관한 '202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관리 제도 운영과 위생관리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위해식품 회수실적 ▲민원 기한 내 처리율 ▲이물 신고 기한 내 처리율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식약처 내부 검토와 우수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무안군 제공



### 고흥군,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페달 블랙박스 장치를 추가 지원해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영광군, '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관 선정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남도립도서관이 주최한 '2025년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관으로 선정돼 5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중 10개관이 선정되었다.

영광군립도서관은 보배로운집(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10회 지원할 예정이다. 화차별로 선정된 주제도서를 읽고 다양한 공예체험을 연계하는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